

#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

### 삼락농정위원회, 정책세미나 개최... 전북 미래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도 삼락농정 식품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정책세미나가 29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전북도의 민선7기 도정목표인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식품분야 정책과제를 현장 중심의 논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포럼 발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유선미 과장이 농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 트렌드와 (주)교촌에 프랜차이즈 김승환 본부장이 식품스마트공장의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 유선미 과장은 '농식품산업의 현주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미래변화 요인'과 이에 따른 '미래트렌드와 대응방안'에 대해 프랑스 보르도 와인의 협력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지역특화 목적형 제품 다변화 전략이 농식품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환 본부장은 교촌그룹의 소스생산공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사용한 '지동화 시스템 도입 사례'와 원료 입고, 사용 및 제조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구축' 등의 사례를 설명하고 "제조업체는 생산이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생산현장을 최적화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유강열 원장이 좌장을 맡아전북대 김용석 교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장한수 실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재홍 부장이 전북도 식품산업향후 트렌드 접목을 위한 전략 마련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유강열 원장은 '간편편이식(HMR) 식품의 확대 필요성'을, 김용석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식품과 기후변화로 다양한 원료농산물 변화에 따른 식품개발 중요성'을,

장한수 실장은 '기능성식품의 완화정책에 따른 전북기업의 전략'을, 이재홍 부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 공장 사례와 소규모 스마트 공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농업인 및 식품기업, 삼락농정 위원, 연구기관, 도·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전북의 농식품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았다.

도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삼락농정 제3기 식품분과 위원들이 급변하는 농식품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오늘 이를 주제로 농식품산업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삼락농정 정책포럼이 열려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 제조기술과 점점 스마트해지는 소비자들에 대처하여 전북 농식품기업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국립 공공보건의료 대학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0월 29일 11:00 전북기자회견실 정의당전북도당



국립 공공보건의료 대학원 설립 촉구하는 정의당 전북도당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 대학원 설립 촉구

##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행복가득 가족놀이터 운영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유호연)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복가득 가족놀이터를 운영한다.

행복가득 가족놀이터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꿈을 만들고 키워가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2020년 경자년 쥐띠

해를 희망차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온 가족의 소망과 염원을 연, 달력, 바람개비에 담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11월 9일에는 우리가족 소망연 만들기 30가족, 바람개비 만들기 100가족, 12월 7일(토)에는 우리가족 소망달력 만들기 30가족, 바람개비 만들기 100가족을 10월 30일부터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대표메일(jchild@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유호연 관장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할 수 있도록 자주 오셔서 재미있게 놀고, 창의력도 쑥쑥 키워가시기 바란다"며 "내년에도 알찬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해야"

### 전북연구원,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 위해 밀착지원 필요 주장

전북도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집중·연계할 수 있는 허브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김선기 원장)은 29일 '전라북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방향'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책의 효율적 전달과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을 둘러

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소상공인이 소수 업종에 집중되어 과당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생존유지에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플랫폼의 기능과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소상공인정책 정보 제공을 일원화하여 정

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 종합 상담 및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맞춤형 정책 마련으로 정책의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다양한 지원서비스 공급자(정부기관·유관기관·민간기업)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상호간 업무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김수은 박사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지원정책의 적시성, 연계성, 전문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오늘 국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 실시

전북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북도민의 지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진 대피훈련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북도 내의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 간 14개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1개소를 중점 훈련대상으로 선정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도민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피 훈련 후에는 훈련 참가자에게 지진 대피요령은 물론 훈련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교육을 병행하

여 지진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 지진 옥외대피소는 1,004개소(학교 운동장, 공원 등)를 지정해 옥외대피소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는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위기의식을 갖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노력해 왔다. /김진성 기자

##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북대도약!

###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에 홀로그램 기술 적용 필요" 국내·외 문화관광 사례 분석·활용 예시 사업 제안

전북도가 정부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홀로그램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문화관광 사례를 소개하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에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전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사업인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에 핵심지역으로 참여하는 만큼, 홀로그램을 적용한 문화관광사업 개발을 통하여 홀로그램 대표지역으로서의 전라북도 브랜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제안이다.

연구진(장세길 연구위원, 신지원 전문연구원)은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뒤, 현재 홀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는 홀로그램 공연, 홀로그램 맵핑쇼, 홀로그램 테마파크, 문화재의 홀로그램 복원·전시, 홀로그램 문화경관, 홀로그램 해설사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중에서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홀로그램 공연과 홀로그램 맵핑쇼로, 전라북도의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서 홀로그램이 적용된 문화관광사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일상적인 장소를 비롯하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사업방향은 다섯 가지로, 홀로그램 공연장을 포함한 홀로그램(아트) 테마파크 조성, 역사문화유산과 지역명소를 연계한 홀로그램 맵핑쇼, 홀로그램 사이니즈와 문화거리 조성, 홀로그램(아트) 페스티벌 또는 비엔날레 개최, 홀로그램 기술의 지역 문화관광축제 연계 등이다. /김진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장외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회원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스피치. 면접. 시낭송. 웃음치료 (1,2월 방학특강)**

44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된 스피치, 면접, 연설, 웅변, 웃음치료 등을 지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바랍니다. 스피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	성인반, 주말반, 개인지도반
정	중, 고등반, 초등, 유치반 (차량운행)
구	취업면접반 (개인지도)
분	회장 인사말, 선거연설 개인지도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면접 담당교수 역임
- 전북대, 우석대, 전주교육대, 군산대
- 과학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전북 최초 스피치1호 지도자
- 기관, 단체특강 600여회
- KBS TV, MBC TV, JTV 출연자

◎ 대학 평생교육원(지역별 2020년 1학기 모집도 합니다)  
전주, 완주, 진안(전주에서)  
남원, 장수, 순창지역(남원에서)  
군산, 부안지역(군산에서)  
김제, 완주지역(전주에서)  
익산지역(익산에서)  
정읍, 고창지역(정읍에서)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부설)**  
**(사)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지부 (부설)**  
**한국스피치 · 면접 · 시낭송 아카데미**

위치 : 금암동 백제직업전문학교 옆 삼거리 5층  
전화 : (063) 285-6676, 231-6669 (주, 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